



# 광남일보



 <b>함평, 국제 선진 농업업 트렌드 도입</b> 스마트농업 등 견학...첨단 시스템 체험 <b>8</b>	 <b>영암, '복지 사각' 다문화가정 청소년 품었다</b> 12년 만에 한국인 권리 찾아줘...공교육 편입 지원 <b>10</b>	 <b>남도장터, 뉴욕페스티벌 국가브랜드 대상</b> 판로 확대 등 농특산소평을 부문 1위 <b>13</b>	 <b>광주은행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개막</b> 대상 김정옥 작가 등 수상...5월31일까지 전시 <b>14</b>
--	---	--	---

주간 제781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음력3월6일)

## '혁신당 반란' 담양군수에 정철원 당선

**4·2 재보궐선거**  
관련기사 3편

4·2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역대급 이변이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에서 이재종 후보를 꺾고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난해 치러진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에 연이어 고배를 마신 조국혁신당은 이번 재선거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하며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0분 현재(개표율 100.00%) 담양군수 재선거는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가 51.82% 득표율(1만 2860표)을 기록,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1만 1956표, 48.17%)를 904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역 1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 이날 투표에는 유권자 4만394명 가운데 2만4969명이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61.8%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4만394명 중 1만 5316명이 투표에 나서 37.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첫 도입된 2014년 이후 담양군수 선거로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무소속으로 3선 군의원을 역임한 정당 선인의 1호 공약은 '담빛 관광타운 조성'이다. 군정사 신속 및 이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메타프로그로까지 이어지는 관광자원의 연계와 체류형 관광을 위한 중심지로 담빛 관광타운을 조성해 사계절이든 이공원, 반려동물특화공원 등 대규모 휴양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담양역세권 친환경 생태도시, 농어촌기반소득 도입, 노후 격정없는 100세 행복도시, ESG 미래성장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철원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 "치열한 선거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건강한 상식과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응집된 것이라 사료된다"며 "고향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지역정치를 일궈왔던 경험과 경륜, 늘 가까이 있는 이웃사촌같은 모



2일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승리한 조국혁신당 정철원 당선자가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51.82% 득표 904표차 1위...민주당 이재종 48.17% '분전'**  
**조국혁신당 최초 단체장 탄생...호남 대안세력 급부상**  
**광양 이돈건·고흥 김재열·담양 노대현 기초의원 당선**

습에서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30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제대로 된 경쟁없이 민주당의 독과점이 유지돼 온 호남정치가 진정한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내년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선명성 경쟁이 더 뚜렷해질 것이고 호남정치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으로 담양의 미래를 설계 해야 할 것"이라며 "절대 실망 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병노 전 군수의 당선후보형으로 열린 이번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

가 팽팽한 경쟁구도를 형성했다.

실제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여 투표 당일까지 쉽사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도부 모두 총출동하는 등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을 펼쳤다. 결과적으로 정철원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조국혁신당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텃밭으로 여겨왔던 전남에서 당력을 총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의 패배를 당하며 자존심을 구기게 됐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치열한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한편 담양군수 재선거와 함께 치러진 광양시 다선거구·고흥군 다 선거구 등 기

### 전남 기초의원 당선자



이돈건 광양시의원



김재열 고흥군의원



노대현 담양군의원

초의원 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돈건 후보와 무소속 김재열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담양군 다 선거구에는 민주당 노대현 후보가 단독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됐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임기 절반을 훌쩍 넘긴 후반기 시점에서 치러진 까닭에 당선인들의 임기는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 광주 '침단'·전남 '뿌리·관광' 유학생 유학 비자 발급 완화

###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첨단산업과 뿌리·관광산업과 관련한 학과에 다니는 유학생들의 유학 비자 발급이 완화된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일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과 첨단산업 인재 유치에 위한 '탑티어(Top-Tier) 비자'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법무부는 공모를 거쳐 14개 광역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선정했고, 이날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광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강원, 충북, 충남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관련 학과 유학생, 전남과 전북, 제주는 뿌리산업(기초 공정 산업), 관광산업 등 관련 유학생의 유학 비자(D-2)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지자체는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탑티어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의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 쌓은 외국인인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986만5000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본인과 가족에게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이 지나면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모·가사 보조인 초청 등도 허용한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탑티어로 인정한다. 대상 산업은 상반기 중 로봇, 방산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尹 탄핵선고 D-1...여야, 막판 여론전

국힘 '야, 승복 얘기'...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를 앞두고 다가온 2일 여야는 긴장감 속에 막판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것을 강조하며 탄핵 '기각·각하'를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며 탄핵 '만장일치 인용'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언급하고 "대통령은 현재 심판과정에서 변호인단을 통해 승복한다고 한 걸로 알고 있고

(승복한다고) 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라며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 전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경호 강화 및 주변 질서·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선고일까지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고, 일부 의원들은 광화문 철야 농성,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 등을 통한 여론전을 이어 갔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광주 살마? 이 앱 들어봤어?

맛집·카페·핫플 광주의 다양한 가게 한눈에

**잇샵으로 핫플 추천, 쿠폰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폰, 잇샵

